

“비슷한 게임은 가라” 달라진 넷마블의 첫 타이틀 ‘A3’

넷마블 미디어 쇼케이스

3월 출시, 3년간 개발 120명 투입 모바일 MMORPG에 배틀로얄 가미 “향후 웰메이드 게임 만드는데 주력”

넷마블이 ‘양산형 게임’을 지양하고, ‘강한 넷마블’의 포문을 열기 위해 융합 장르 게임으로 차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출시를 앞둔 ‘A3: 스틸얼라이브’가 포문을 연다. 넷마블은 A3: 스틸얼라이브를 통해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배틀로얄’ 콘셉트를 가미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넷마블은 22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3월 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A3: 스틸얼라이브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권영식 넷마블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넷마블

통해 “A3: 스틸얼라이브는 웰메이드와 장르융합이 특징”이라며 “흔히 MMORPG가 양산형 게임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A3: 스틸얼라이브는 MMORPG에서의 차별화 된 콘텐츠를 배틀로얄로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웰메이드와 장르융합’, 투트랙으로 넷마블의 강점인 MMORPG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넷마블은 올해 ‘강한 넷마블, 건강한 넷마블’을 표방하며, 업(業)의 본질인

게임 사업을 강화한다고 표방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내세운 경쟁력은 융합장르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해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는 게임을 스피드하게 만들고 장르 선점을 하는 전략이 있었다면 지금은 웰메이드 게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미래는 융합 장르 게임으로 전환될 것이고 넷마블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나온 A3: 스틸얼라이브는 지난 2002년 출시한 넷마블의 자체 지식재산권(IP) PC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을 모바일 MMORPG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모바일로의 이식을 위해 3년의 개발 시간과 12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A3: 스틸얼라이브는 ‘30인 배틀로얄’을 통해 기존 모바일 MMORPG에서 볼 수 없었던 경쟁을 선사한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30인 배틀로얄의 생존 결과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경험치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홍광민 이데아게임즈 개발총괄은 “처음에는 50명을 기준으로 3개월 간 테스트한 결과, 사이즈나 게임 체감, 재미면에서 30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30인 배틀로얄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A3: 스틸얼라이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도 출시표를 던질 예정이다.

넷마블은 지난 13일 글로벌 담당인 이승원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하며, 올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대에 대

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선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A3: 스틸얼라이브 글로벌 원빌드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판호(유통허가권) 문제가 해결되면, 중국 시장 진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식 대표는 “넷마블도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수년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어 좋은 소식이 들리면 빠르게 진출하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많지만 자체 IP를 가지고 글로벌 빅마켓에 도전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PC나 콘솔 게임 등 플랫폼 융합에 대해서는 기술적 장벽은 없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진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 다만, 당분간은 주 플랫폼인 모바일 시장 안착을 위해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넷마블은 게임의 공식 브랜드 사이트에서 이날부터 A3: 스틸얼라이브의 사전등록과 함께 TV 광고를 시작하고, 오는 3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월 기본료 1만원에 데이터 15GB 쓰세요”

LG헬로비전

오프라인 매장·다이렉트몰 상품 판매 요금제 49종 구성... 특화 라인업 마련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LG유플러스망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다이렉트몰을 통해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KT, SK텔레콤망에 이어 LG유플러스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LG유플러스망 요금제는 총 49종으로 구성됐다. 라인업은 ▲데이터 걱정 없는 LTE형(대용량·속도제어) 8종 ▲스튜디오리얼형(The 착한 데이터·CU) 15종 ▲LTE 중저가형(슬림·보편) 20종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요금제, 패드 전용 요금제 등 특화 라인업도 마련됐

다.

데이터를 많이 쓰는 2030 이용자를 겨냥한 ‘데이터 걱정 없는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걱정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터 걱정 없는 유심 일5GB’를 통해 월 150기가바이트(GB)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를 월 3만 98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한 ‘슬림·보편 요금제’도 신설됐다. ‘슬림 요금제’는 소량의 제공량을 월 1만원 미만(유심요금제 기준)의 초저가 기본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월 1만~2만원대(유심요금제 기준) 기본료에 데이터를 15GB까지 제공한다.

/김나인 기자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태평양물산 본사에서 진행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섬유·의류업체 친환경 제품개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형생 태광산업·대한화섬 공동대표(왼쪽 세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태광산업

태광산업-대한화섬, ‘에이스포라 에코’ 주목

“친환경 섬유 사용확대... 제품 차별화 주력”

태광산업이 대한화섬과 함께 친환경 섬유 ‘에이스포라 에코’에 주력하고 나섰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글로벌 SPA 브랜드와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친환경 섬유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친환경 섬유 ‘ACEPOR

A-ECO(에이스포라 에코)’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차별화하는 한편 마케팅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에이스포라 에코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리사이클 나일론 섬유가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100km 6초면 충분... 정숙함에 담긴 야성

자동차 시승기 벤츠 ‘더 뉴 GLC’

M264엔진에 ‘9G 트로닉’ 조합 4기통 터보엔진 최고출력 258마력

슈퍼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제네시스 등 신형 럭셔리 브랜드도 신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4년 연속 수입차 시장 1위를 이어갔음에도 위기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벤츠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신차 15종 출시와 서비스 센터 확충 등 기본에 충실한 계획을 소개했다.

‘더 뉴 GLC’ 출시가 그 첫걸음이다. SUV 라인업 중 미드 사이즈를 담당하는 모델로, 2016년에 처음 내놨던 모델을 부분변경했다. 우선 GLC 300 4매틱과 쿠페를 내놓고, 추후 AMG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더 뉴 GLC 300 4매틱을 타고 약 100km를 달려봤다. 서울 청담에서 춘천까지 시내와 고속도로를 아우르는 코스다. 일반 트림이라 반자율주행은 사용하지 못했다.

외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벤츠 패밀리룩을 기반으로 한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다. 고성능 LE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된다는 것만 눈에 띄는 변화다.

문을 열고 나서야 ‘더 뉴’의 의미를 알게된다. 더 뉴 GLC 300은 전기차인 EQS에 이어 2번째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를 장착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보다 2배 가까이 커졌고, 인터페이스도 더욱 직관적으



더 뉴 GLC.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C 실내. /김재용 기자

로 변했다. CD 투입구 대신 공조 시스템 버튼을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휴대폰 무선충전 공간은 벤츠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 상당수가 무선충전 공간을 애매한 위치·크기로 만들어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지만, 더 뉴 GLC는 안쪽으로 밀어넣게 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편의성도 높였다. 갤럭시 노트9이 넉넉히 들어갈만한 크기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세련된 푸른색을 내준다. 디지털 계기판은 3개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두 크고 또렷한 아이콘을 사용해 남녀노소 직관

적으로 인식하고 조작할 수 있다.

출발도 간편하다. 시동을 켜면 전 기차와 비교할만큼 정숙함을 지키면서도, 브레이크를 떼면 아주 잠깐의 무게감을 주고는 쭉쭉 뻗어나간다. 공차중량이 1800kg대로 가벼운 편인데다가 파워트레인도 강력해서다.

더 뉴 GLC 300은 M264 엔진에 9단 변속기인 ‘9G 트로닉’을 조합했다. 벤츠의 최신 기술들을 모두 담은 셈이다. 2.1짜리 직렬 4기통 터보차저 엔진이 최고출력 258마력에 최대토크 37.7kg·m을 내준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를 내는데까지 6초대면 충분하다.

서스펜션은 이전과 같은 제품을 썼음에도 더욱 안정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해준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세팅값을 변경하고 시트질도 높은 결과로 보인다.

딱 하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USB 포트다. 기존에 있던 슬롯 대신 마이크로5핀 규격만을 지원한다. 새로운 MBUX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딱히 성능을 높이는 조치는 아닌만큼, 1개 정도는 기존에 사용하던 규격을 장착해줬으면 어땠을까 싶다.

/김재용 기자 juk@